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로또청약’ 당첨돼도
현금 25억 필요
08

metro®

Life

APEC 빛낸
K-뷰티
우수·혁신성 알려
L2



“액티브는 공격 아닌 대응… 성실함 쌓아 신뢰 완성할 것”



새벽을 여는 사람들

타임폴리오자산운용
김 남 호 ETF운용본부장

그의 밤은 두 개로 나뉜다.

첫 번째 밤은 10시 무렵 잠드는 시간, 두 번째 밤은 새벽 2시 알람이 울릴 때부터 시작된다. 김남호 타임폴리오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2시부터 한 시간 동안 미국 주식 체결 현황을 살피고, 오더가 계획대로 흘러가는지 꼼꼼히 점검한다. 미국장은 새벽 5시에 닫히지만 그는 그 이전 1시간을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구간’으로 쓴다. 기록을 남기고, 다시 눈을 붙인다. 아침 6시 반~7시 사이 출근한 김 본부장은 커피 한 잔과 함께 블룸버그 단말을 켜고 밤새 움직인 매니플로우(자금 흐름)를 스크랩한다. 8시부터는 국내 장 개장을 맞춰 포지션을 조정하고, 장중엔 실시간 대응에 집중한다. 장이 끝나면 저녁 세미나·강연 일정을 소화하고, 다시 미국장 주문을 넣는다.

김 본부장은 “운용은 숫자가 아니라 루틴이다. 하루 한 시간이라도 시장을 더 보면, 그 시간이 쌓여 판단의 밀도가 달라진다”라고 말했다.

그에게 루틴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운용 철학이다. 시장이 쉴 때 자신은 준비하고, 시장이 열릴 땐 집중한다. 운동 역시 루틴의 한 축이다. 필라테스 두 번을 포함해 주 4회 운동으로 컨디션을 관리한다. 김 본부장은 “무게보다 균형이 더 중요하다”며 컨디션이 흔들리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을 경계했다.

스스로를 관리하는 일과 시장에서 잠시 물러나는 법, 그 균형에서 ‘손실을 복구하는 힘’이 나온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김 본부장은 “(거래를 할 때) ‘고집’이 제일 위험하다. 내가 맞다고 믿는 순간, 포트를 바꿔야 할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액티브를 향한 오해 풀고파”

김 본부장의 시작은 수학이었다. 스톤브룩대에서 수학·통계를 전공했고, 산업은행 PEF 부서에서 커리어를 열었다. 그는 “주식·채권이 아닌 지분투자를 하며 ‘사람이 기업을 바꾼다’는 걸 배웠다”고 말했다. 그는 2014년 말 한화자산운용으로 옮긴 뒤 6년간 패시브 ETF를 운용했다. 거시·산업구조·팩터 분석으로 시장을 정교하게 설명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갈증이 쌓였다.

김 본부장은 “ETF 코멘트를 쓰라고 하면 매크로 전망은 술술 나오는데, ‘내 판단’이 담긴 문장은 비어 있었다. 하지만 액티브는 달랐다. ‘왜 이 기업인가’를 내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회상했다. 그는 직전 직장인 한화자산운용을 퇴사한 뒤 단 5일의 휴식만 갖고 타임폴리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결정의 순간, 힘이 되어준 사람은 아내였다. 그 한마디가 방향을 정해줬다”고 미소지어 보였다.

그가 액티브를 정의하는 방식은 분명하다. “액티브는 공격이 아니라 대응”이라는 정의를 분명히 했다. “시장은 살아 있는 생물이고, 자금의 방향은 매일 변합니다. 오를 땐 주도주로, 흔들릴 땐 방어·배당으로, 유동성의 물길을 바꿔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의 모니터엔 늘 엑셀로 정리된 수급표가 떠 있다. 그는 “논리보다 유동성이 가격을 움직인다. 돈이 가는 길을 해석하는 게 운용역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대응은 실제 성과로 이어졌다. 실제로 TIMEFOLIO 글로벌AI인공지능액티브’는 상장 이후 누적 280%,



김남호 타임폴리오자산운용 ETF운용본부 본부장이 메트로경제와의 인터뷰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타임폴리오자산운용

“

수학·통계 전공 후 산업은행서 커리어 시작
‘내 판단’ 담을 수 있는 액티브에 매력 느껴
돈이 가는 길 해석하며 시장 유동성 파악해
AI·가상자산 등 유연한 대응으로 성과 창출

최연소 본부장… 함께 일하고 싶은 팀 구축
하루 한 시간씩 더한 꾸준함으로 판단력 키워
단기성과 아닌 장기구조 액티브 ETF ‘목표’

연초 이후 40% 수익률을 기록하며 순자산 1조원을 돌파했다. 생성형 AI·반도체·클라우드·전력 인프라까지 밸류체인을 넓게 잡고, 국면이 바뀔 때마다 포트폴리오를 기민하게 조정했다. 때로는 ‘라부부’ 인형 열풍을 포착해 제조사 팝마트(Pop Mart)를 담고, 글로벌 OTT 발 콘텐츠 확산에 맞춰 인바운드 수혜 리츠 비중을 ‘K-컬처액티브’ 내에서 확대했다.

가상자산 관련주엔 더 과감하게 나섰다. 스테이블코인 ‘썬’을 국내에서 가장 먼저 편입해 일부 차익을 실현했고, ‘미국나스닥100액티브’에서는 로빈후드를 톱포트로 끌어올렸다. 그는 “지수와 상관을 관리하면서도 알파를 내야 한다. 새로운 유동성이 유입되는 교차 지점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런 그가 특히 애착을 드러낸 상품은 ‘Korea플러스배당액티브’다. 월 0.5% 분배 구조를 설계해 운용성과(매매 차익)와 기업 배당을 결합, 세후 효율을 극대화했다.

김 본부장은 “이 상품이야말로 패시브로는 만들 수 없는 구조”라며 “운용을 잘해야 분배금을 줄 수 있고, 상장 후 상장가가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성과보다 ‘돌아오는 팀’을 만드는 사람

지난 조직개편에서 타임폴리오는 ETF본부를 ‘운용’과 ‘전략’으로 분리했다. 전략본부는 김남의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본부장이, 운용본부는 그가 맡았다. 업계 최연소 본

부장 타이틀을 달게 된 것이다. 팀원도 6명에서 9명으로 늘었다. 16개 ETF 가운데 8개를 그가 직접 운용하고 있으며 새로이 합류한 팀원들이 함께 애쓰고 있다.

그는 “최연소 본부장 타이틀의 부담보다 성과의 압박이 크다”며 “그럼에도 이 회사의 장점은 ‘운용이 본업에 집중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리더십은 동료들 ‘매니저 대 매니저’로 대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김 본부장은 “내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매니저들의 의견을 묻고 토론을 거쳐 포트폴리오를 완성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후배 매니저들을 대할 때 상품에 대한 보고보다 일상의 대화를 먼저 나눈다. “이번 주말 뭐 했어?”로 시작하는 팀 미팅에서 ‘사람의 온기’가 먼저 공유된다.

그는 “성과만 따지면 매니저는 결국 떠날 수밖에 없다. 함께 일하고 싶어지는 팀, 실패하더라도 배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팀이 지속 가능한 조직이다”라고 정의했다.

타임폴리오가 그에게 어울리는 회사였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는 “운용역이 본업에 집중할 수 있게 절차보다 실행을 중시한다. 사장님, 부사장님이 직원들의 고민을 직접 들어주는 문화가 있고, 그런 분위기 덕분에 매니저들이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스스로를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김 본부장은 “패시브 위주의 자산운용사엔 탁월한 퀀트·패시브 인재가 지금도 많지만 내게 유일하게 더 나은 점이 있다면 ‘꾸준함’이라고 꼽았다. 이어 “하루 한 시간을 더 본다면 1년이면 15일이 된다. 10년이면 150일이다. 그렇게 쌓인 시간이 결국 시장을 보는 눈을 다르게 만든다. 앞으로도 그 ‘성실한 시간의 힘’을 믿으며 나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의 비전은 단순하지만 뚜렷하다. 액티브 ETF를 ‘단기 성과’가 아닌 ‘장기 구조’로 자리 잡게 하고, ETF 매니저도 ‘이름’이 있는 직업으로 만드는 일이다.

김 본부장은 “ETF에도 ‘신뢰의 이름’이 필요하다. ‘그 운용역이 맡은 액티브 ETF면 들어갈 만하다’는 말이 나오는 시장을 만들고 싶다”는 게 그의 바람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제작년 ‘떼죽음’ 견뎌낸 산양, 11월 멸종위기종 선정
▲APEC도 놀란 한국시리즈 열기…LG, 2년만에 통합 우승
/사진 뉴스스

▲‘항희찬 결장’ 올버햄프턴, 풀럼에 0-3 완패… EPL 10경기 무승
▲다저스, 연장 11회 접전서 토론토 꺾고 MLB 월드시리즈 2연패

▲임예진, 서울마라톤 여자부 우승…김홍록은 남자 국내부 1위
▲‘점프 실수’ 피겨 윤아선, 시니어 그랑프리 3차 대회 최종 10위